

## 플무원 오너의 횡포

76% 손익감소불구 사장에 46억 지급  
본사 직원 평균연봉은 20% 가량 줄어

무더기 가격 인상, 본사 직원들의 지점장 폭행 사망 사건, 장녀 파산 신청 등 각종 사건으로 기업 이미지가 크게 훼손된 플무원이 이번에는 직원 급여를 줄이고 오너 보수는 대폭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플무원은 지난해 순이익이 75.8% 감소한 상황에서 남승우 총괄 사장에게 보수로 24억원, 배당으로 22억 2700만원 등 무려 46억2700만원을 지급했다.

남 총괄사장의 급여는 9억1300만원이지만, 플무원은 남 사장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14억 8700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남 총괄사장의 지난해 보수는 2014년 18억원에 비해 무려 33.6% 오른 금액이다. 플무원은 남 사장이 재무지표 중 매출은 목표의 95%, 영업이익은 68% 달성했으며, 전략지표는 120% 달성했다고 평가해 상여금을 지급했다.

반면 플무원 본사 직원들의 1인당 평균연봉은 2014년 6444만원에서 2015년 5082만원으로 무려 1362만원(21.1%)이 줄었다. 회사 순이익이 곤두박질쳤으며 직원들 보수는 20% 가량 줄었고, 사주의 보수는 거꾸로 6억원이나 올린 것이다.

한편 플무원 오너 일가는 꾸준히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남승우 총괄사장은 2008년 8월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한 차명계좌와 주식거래로 기소돼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소1부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78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남 총괄사장은 당시 플무원홀딩스가 플무원 주식을 시세보다 비싸게 100% 공개매수하기로 하자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기 전에 두 자녀와 친구, 친구의 두 자녀 등 5명의 차명계좌로 공개매수가보다 저렴하게 주식을 매수해 3억8000만원의 수익을 남겼다.

남 총괄사장의 장녀는 지인에게서 빌린 40억 원을 돈이 없어 못 갚겠다며 법원에 파산신청을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플무원은 오너의 불법 주식거래와 장녀의 파산신청에 이어 직원 간 폭력행사 사건 등을 일으키며 오너 1인 지배체제의 문제점을 속속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원형모 기자 sereno@donga.com

## 국학원, 통일기원 나라사랑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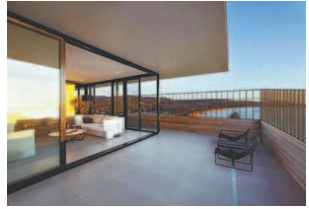


사단법인 국학원이 '애국심 고취를 위한 통일기원 나라사랑교육' 사업을 실시한다. 청소년들의 국가안보와 평화통일에 대한 이해를 돕고 미래지향적인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 8000여 명을 대상으로 11월까지 총 360회에 걸쳐 교육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국학원은 지난 4일 강사 110여 명에 대해 효과적인 사업진행을 위한 설명회(사진)와 강사 레벨업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의 주요 주제는 '광복 71주년 대한민국 이야기(대한민국 발전사)', '독립군 항일투쟁과 한민족의 흔적을 찾아서(독립운동사)', '한민족의 위대한 문화유산, 통일대박을 꿈꾼다(새로운 탄생)'의 세 가지이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가 후원한다. 한편 국학원은 한민족 전통문화의 중심이라는 주제로 매월 무료 국민강좌를 시행하고 있다.

양형모 기자

## 회전식 오피스 '스윙가드' 인기



기능성 회전식 오피스, 난간인 스윙가드의 스윙가드(사진)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기존 오피스, 난간은 바람을 막는 역할이 없거나, 있다고 해도 딱히 있어 답답했다. 뿐만 아니라 내부가 흰색 노출돼 사생활 보호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스윙가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제품이다. 바람의 유입을 원할 때나 밖의 경관을 즐기고 싶을 때는 열 수 있다. 방풍과 방음효과를 원할 때, 사생활을 보호받고 싶을 때는 닫으면 된다. 수동 개폐형으로 튼튼한 잠금장치가 있다.

특허(제10-1576938호)를 받은 최초의 오피스 리 제품이다. 건물의 양식에 맞게 색상과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다. 건물의 담장, 주차장 외벽, 전원주택 오피스, 카페테라스, 건물난간 등 다양한 곳에 설치해 캐주얼하면서도 재미있는 공간을 연출할 수 있다.

양형모 기자



성수기인 여름을 맞아 국내 주요 PC온라인게임들이 대거 콘텐츠 업데이트를 진행하며 흥행몰이에 나선다. 아이덴티티모바일이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파이널판타지14'에 추가한 첫 번째 확장팩 '창천의 이슈가드' 대표 이미지. 사진제공 | 아이덴티티모바일

## PC온라인게임 여름 업데이트 전쟁

'파이널판타지14' 첫번째 확장팩 출시  
'던전앤파이터' 총력전 3대3 결투장 신설  
'테라' '아키에이지'도 콘텐츠 추가 예정

본격적인 여름 시즌을 앞두고 PC온라인 게임들이 콘텐츠 업데이트 경쟁을 시작했다. 국내 주요 게임사들은 인기 PC온라인 역할수행게임(RPG)에 잇따라 대규모 콘텐츠를 추가하며 흥행몰이에 나설 방침이다.

아이덴티티모바일은 14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파이널판타지14'의 첫 번째 확장팩 '창천의 이슈가드'를 출시했다. 신규 지역 이슈가드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모험을 담았다. 여명의 아버지와 황혼의 어머니의 후손인 신규 종족 '아우라'를 비롯해 마법 공격에 강한 탱커 '암흑기사', 강력한 원거리 공격을 하며 파티원을 돕는 '기공사', 새로운 힐러 '점성술사' 등 3개의

새로운 직업이 추가됐다. 이밖에 세 이동수단인 '나는 탈 것'과 퀘스트 및 신규 던전 등 즐길거리가 대거 업데이트 됐다. 아이덴티티모바일은 확장팩 출시를 기념해 7월 14일까지 다양한 이벤트를 벌인다. 이벤트 기간 내 새로 가입한 모든 유저에게 14일 동안 게임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또 해당 유저가 '30일 이용권'을 처음 결제하면 기존에 비해 50% 할인된 9900원에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넥슨은 서비스 11주년을 맞아 액션 RPG '던전앤파이터'에 '기존 틀과 한계를 깨뜨린다'는 콘셉트의 'The 파(破)' 업데이트를 이달부터 9월까지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6월엔 계정 내 캐릭터 세 개를 활용해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한 '총력전-3대3 결투장'을 추가한다. 또 액션의 재미를 살린 시즌 서버 '컨트롤의 신'과 안톤 레이드의 재미요소를 4인 파티로 즐길 수 있는 '각성 안

톤' 신규 모드도 공개한다.

7월과 8월엔 남 마법사 신규 전직 3종과 2차 각성을 공개하고, 크로니클 아이템 및 에픽 아이템 개편을 진행한다. '결투장 시즌 4'도 선보인다. 9월엔 게이머들이 가장 기다려온 새로운 지역 '마계'를 공개한다. 아울러 최고 레벨을 90까지 확장하면서 그에 따른 신규 아이템 등도 추가한다.

넥슨은 블루홀이 개발한 MMORPG '테라'에도 올 여름 길드대전과 거대 몬스터 레이드, 직업 개편, 신규 던전 등 주요 콘텐츠를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엑셀게임즈는 MMORPG '아키에이지'에 여름 업데이트 '오크드나의 증오'를 준비 중이다. 7월13일에 콘텐츠를 추가할 예정으로, 신규 종족 워본과 드워프 등을 선보인다. 신규 콘텐츠는 업데이트 예정일까지 순차 공개할 예정이다.

김병근 기자 dionys@donga.com

## '2017 카니발' 출시...안전·편의사양 'UP'

충돌 정도에 따라 압력조절 '스마트 에어백'  
운전자 피로 줄여주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아차에서 안전 및 편의사양을 대폭 보강한 미니밴 '2017 카니발'을 출시했다. 패밀리 미니밴이라는 용도에 맞춰 안전 사양을 대폭 보강했다. 충돌 정도에 따라 압력이 2단계로 조절돼 상해 위험을 줄이는 스마트 에어백(운전석·동승석 적용), 차량이나 보행자와의 충돌이 예상되면 차량을 긴급 제동시켜 피해를 최소화하는 긴급제동보조시스템(AEB), 동승석 시트벨트 경보장치, 4열 센터시트 헤드레스트 등을 신규 적용했다.

장거리 여행시 운전자의 피로를 줄여주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SCC)과 운전자가 시트 측면의 스위치를 통해 동승석의 위치와 기울기를 쉽게 조절할 수 있는 동승석 워크인 스위치 등 고객선호 편의사양도 더했다.

여기에 8개 스피커로 풍부하고 명료한 사운드를 구현한 JBL 사운드 시스템과 애플 카플레이를 신규 적용해 감성 만족도를 높였다. 디자인도 소폭 개선했다. LED 주간주행등(DRL)을 적용하고 스티어링 휠 및 기어노브



기아자동차는 안전 및 편의사양을 개선한 2017 카니발과 합리적인 가격대의 트림을 신설한 2017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사진제공 | 기아자동차

디자인도 고급감을 높이는 쪽으로 개선했다. 가격은 20~59만원(개소세 3.5% 기준) 올랐다.

'하이리무' 트림을 신설한 '2017 카니발 하이리무진'도 함께 출시했다. 기본 모델 대비 약 210mm 높은 실내높이로 넉넉한 공간이 강점이다. 21.5인치 후석 모니터, 냉온 컵홀더, LED 독서등, 주름식 커튼 등 차별화된 사양을 갖

추고 있다. 3980만원의 하이리무 트림을 신설해 진입장벽을 낮췄다.

2017 카니발의 판매가격은 리무진(7인승) 디젤모델이 3490만원~3878만원, 가솔린 모델이 3701만원, 9인승 디젤모델이 3045만원~3705만원, 가솔린 모델이 3565만원이며 11인승 모델은 2755만원~3650만원이다.

원형모 기자 sereno@donga.com

## CF 톨보기

| 한우자조금관리위 '한우! 바로 알기' 편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의 CF는 전문가를 기용해 신뢰성을 높이며 한 시도는 좋았으나 단순하고 지루한 진행으로 미흡한 광고가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 한우는 부드럽고 맛있 광고는 질기고 맛도 없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의 '한우! 바로 알고 계시나요?' 편은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와 같은 대중스타가 아닌 전문가를 전문에 포진시킨 광고이다. 이렇듯 전문가를 기용한 광고의 장점은 뭐니 뭐니 해도 내용에 대한 신뢰감을 시청자들에게 쉽게 각인시킬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의 이 광고는 먼저 질문을 던지고, 이후 전문가 두 사람이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는 단순한(그리고 전형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채식이 육식보다 건강에 좋다?"라는 질문이 뜨면 이어 음향과 함께 가위표가 짝 그어지고, 여기에 대해 의학박사가 설명을 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이 질문에 전문가가 "편식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한우는 중성지방 수치가 낮아서 현대인의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라고 답변한다.

질문은 총 세 개가 주어진다. "한우 지방은 기름덩이?"와 "어린이와 노인에게 고기는 좋지 않아요?"가 추가되어 총 세 개. '기름덩이' 질문에는 또 다른 전문가가 "한우는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준다"고 설명한다.

전문가들이 답변을 하는 배경으로는 맛있어 보이는 갈비찜, 불고기 등 한우로 만든 요리들이 지나간다.

설명이 모두 끝나면 첫 번째 전문가가 다시 등장해 "한우에 대한 잘못된 상식, 이제 바로 아시겠어요?"하며 광고를 마무리한다. "알면 알수록 우리 한우"라는 자막이 뜬다.

이 광고의 맹점은 세 개의 질문에 있다. 한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그렇게 없나 싶을 정도로 질문이 허술하다. 게다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전문가의 설명은 동문서답의 느낌마저 들게 한다. "채식이 육식보다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사실이냐?"고 묻는데 답은 "편식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라니. 엉뚱하지 않은가.

마지막 질문, 고기가 어린이와 노인에게 좋지 않다는 말은 솔직히 들어보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많은 부모들이 성장기의 자녀들에게 고기를 먹고 있을 것이다. 물론 "고기만 먹지 말고 야채도 함께 먹어라"하고 잔소리는 하겠지만.

결정적으로 이 광고는 참신하지도 재미있지도 않다. 그저 교실에 우두커니 앉아 두 교수의 딱딱한 강의를 듣는 느낌이다. 한 마디로 따분하다. 한우 하나 먹자는데 뭐 이런 고생까지 해야 하나 싶은 마음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온다.

정보제공으로서도 광고로서도 딱히 성공했다고 보기 어려운 광고다. 영화를 보러 갔다가, 요즘은 없어진 '대한뉴스'만 잔뜩 보고 나온 기분이다.

한우는 부드럽고 맛있. 하지만 이 광고는 질기고 맛도 없다. 양형모 기자 rambi@donga.com

## "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 서둘러라" 케이블TV업계, 정부에 M&A 결론 촉구

케이블TV업계가 정부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관련 심사를 서둘러달라고 촉구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미루지 말고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심사해 인수합병 인가여부를 조속히 결정해달라"고 밝혔다. 정부 결정이 미뤄지면서 매각을 추진하는 기업은 물론 시장 구조개편 속에서 자구적 도약을 모색하는 기업들이 예측 불가능한 시장상황에 발이 묶여 버렸다는 게 협회 측의 주장이다. 협회는 이어 "케이블산업은 정체기를 겪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고사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며 "인수합병이 위기극복의 유일한 정답일 수는 없겠지만, 케이블이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에 대응하고 새 투자유인을 마련하기 위해선 지속적 구조개편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김병근 기자 편집 | sss23@donga.com